

건강을 지키는 현장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이 곧 우리의 기쁨 ! !

국민 보건 의식 향상에 기여하려는
열기로 뜨거웠던

'93 보건교육 담당자 교육



한국건강관리협회는 '93년도 보건교육담당자교육을 지난 11월 17일부터 2박 3일간 수안보 상록회관에서 가졌다.

보사부의 후원하에, 전국의 일선 보건 교육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은 교육 내용면에서 어느 때보다도 충실했고, 또 교육생들도 아주 진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역주민 보건 의식 향상을 통한 건강증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가 뜨거운 열기로 살아났던 '93 보건교육 담당자 교육의 현장을 소개한다.

건강을 지키는 현장

◦ 최일선 보건교육 담당자들, 진지하게 교육받아

보건교육 담당자 교육 - 초창기에는 보건관리자 교육이었다. - 이 처음 실시된 것은 '88년도이다. 올해로 6년, 그러니까 만 5년째가 되는 이 교육은 그동안, 일선 보건관리자, 보건교육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국민 보건의식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관리자의 자질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올해는 시도 및 시군 보건소에서 실제로 주민들과 더불어 생활하고 생각하는 최일선의 보건교육 담당자들이 교육에 참석함으로써 어느 해보다도 진지한 교육이 이루어졌던 것 같다.



이번 교육에서는 미래지향적 보건교육 방향과 실제적 교육 프로그램의 제시 등 이론과 실재를 조화시킨 강의를 이루어졌다. (사진 : 한충길 보건교육과장의 강의장면)

◦ 이론과 실재를 겸한 명 강의를

이번 교육에서는 철학이 있는 보건관리와 우리의 자세(연세의대 유승훈 교수), 우리나라 보건의료 현실의 문제점과 개선책(서울대 보건대학원 문옥륜 교수), 지역사회 주부를 위한 보건교육 프로그램(이화여대 김초강 교수), 국민건강증진 시책방향(보사부 한충길 보건교육과장), 지역주민의 보건의식 향상을 위한 일선 보건관리자의 역할(연세의대 명예교수)등 5주제를 통해 미래지

건강을 지키는 현장

향적인 보건교육의 방향과 실제적인 프로그램의 구성방법 등, 이론과 실재를 적절히 조화시킨 강의를 실시함으로써, 일선 보건 교육 담당자들이 앞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보건교육활동 사례 발표 통해 서로의 정보 교환

한편, 이번 교육에서 특기할만한 것은, 보건교육 활동 사례 발표였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보건소 배이미씨, 충북 청원군 보건소 정복희씨, 경남 장승포시 보건소 박찬수씨 등 3명의 사례발표에서는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방법 개발이 활동 상의 애로 사항 등 실제 보건교육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의 일들이 이야기되어짐으로써 서로의 정보교환 뿐만 아니라 활동 상의 애로사항과 그 개선 방안이 토의되기도 했다.

◦ 대상에 맞는 보건교육 교재 개발이 아쉽다

이번 교육에서 교육생들이 제기한 문제 중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다양한 보건교육 교재 개발의 필요성이다. 다시 말해

건강을 지키는 현장

서 각 지역의 보건교육 대상, 즉 지역주민의 연령·교육수준·중요 질병 등에 따른 보건교육 교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일선에서 교육을 하는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보다 원활한 보건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보건교육 교재의 개발을 위해 정부·보건단체·학계 등 사회 다방면에서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교육생들이
제기한 문제 중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다양한
보건교육 교재개발의
필요성이다.

(사진 : 사례발표를 하고
있는 정복희씨)



◦ 국민보건 의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서로의 의지 확 인

'93 보건교육 담당자교육을 마치던 날, 교육생들의 얼굴은 밝게 빛나고 있었다.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면 여전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주민 대상 보건교육을 담당해야 하지만, 국민 보건 의식 향상을 통한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똑같은 의지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확인했기 때문이리라.

부디 이들의 뜨거운 의지가 좋은 성과물로 나타나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㉞